

“유엔총회 의장 선출날 9·11테러 발생”

한승수 전 장관, 유엔 의장 시절 회고록 출간



한승수 전 유엔총회 의장이 9·11 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56차 유엔 총회 의장을 맡으면서 겪었던 경험과 일화 등을 담은 영문 회고록을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전 의장은 22일 유엔본부 내 서점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11의 그림자를 넘어서 : 유엔 총회에서의 1년’이란 제목의 회고록 출간 사인회를 개최했다.

이 책은 한 전 의장의 의장 시절 일기로 매일 정리했던 일들을 2004년부터 2년간에 걸쳐 쓴 것으로, 9·11테러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경험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일화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 9월11일 아침, 이날 총회가 열려 의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던 한 전 의장은 유엔본부 내 식당에서 조찬 회담을 갖고 있던 중 당시 의장 비서실장이던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으로 부터 세계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다는 메모를 전달받았고, 다음 테러 목표가 유엔본부라는 얘기로 건물이 모두 소개되면서 총회가 다음 날로 연기되는 바람에 총회 의장이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하루 동안 공석이 된 사연도 책에 소개됐다.

한승수 전 장관, 유엔 의장 시절 회고록 출간

한승수 전 장관, 유엔 의장 시절 회고록 출간

송태복 전남대 교수 산부인과초음파학회장에



송태복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최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10차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이번 달부터 2009년 9월말까지 2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치료법에 관한 새로운 의학 지식과 정보를 교환해 산부인과학, 나아가 인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발족했다. 회원 수는 800여명이다. 송 교수는 향후 연구 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창덕 조선대 교수 항공우주학회 부회장에



공창덕(56) 조선대 공과대학 항공조선공학부 교수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2007년도 평의원 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1967년 설립된 한국항공우주학회(회장 이 인)는 현재 정회원수가 3천명을 웃도는 항공우주 분야 학자와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공 교수는 12년 동안 사업이사를 맡아 왔다. 부회장 임기는 2008년부터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공 교수는 지금까지 28편의 SCI급 국제저널을 포함한 300여 편의 국내외 주요학회 논문을 게재하고 발표했으며, 한국항공우주학회와 한국 추진공학회 2006년도 학술상을 수상했다.

고어 전 미부통령 역사·시사·정치부문 ‘퀵스’ 수상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우수 저서에 수여되는 퀵스를 22일 수상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고어는 지난해 ‘불편한 진실’에 이어 올해는 ‘이성에 대한 공격’으로 지난해처럼 역사·시사·정치 부문 퀵스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3회째를 맞은 퀵스는 부문별로 모두 19명에게 수여되며, 온라인 투표로 이들 중 1명에게 한해의 책상이 수여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측**
- ▲최민하씨 장남 건상(송정농업협동조합) 박홍남씨 장녀 선영(광주 신세계 홍보실)양=27일(토)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머랄드홀.
 - ▲황정례씨 아들 이충권군 신경우(무안교육장)씨 딸 소원양=27일(토) 오후 1시30분 오페라하우스 1층 예식홀.
 - ▲최정권(대한일보 이사)씨 장남 재석(대전전산)군 황경연씨 장녀 옥윤양=27일(토) 오후 1시50분 상록웨딩홀 3층 무궁화홀.
 - ▲신대균(영암 문화원장)씨 장남 재현군 천시욱씨 딸 주희양=28일(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피로연 23일(화) 영암읍 중앙회관.
 - ▲김용철씨 막내 판중군 이행준

- 씨 차녀 희승양=28일(일) 낮 12시 10분 전주교 화운동 성당.
- ▲심용식씨 차남 우현(한국건설)군 김재일(영진세라믹 차장)씨 동생 애숙(현대병원 수간호사)양=28일(일) 낮 12시30분 교원공제회관 3층 웨딩홀.
- ▲이정철씨 장남 명규(현대개발 건설 대리)군 서용기씨 장녀 미영양=28일(일) 낮 12시30분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 ▲김선표씨 장남 진일(곡성상류게소 관리과장)군 광동근씨 장녀 숙희(주암휴게소 판매원)양=28일(일) 오후 1시 광산구 콜럼버스 웨딩홀 2층 아모르홀.
- ▲송명기(용산전력 대표)씨 장남 화중군 정찬길(서울 율곡초 교사)씨 장녀 혜진양=28일(일) 오후 1시10분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유영철(담양 부군수)씨 차남 창현군 고하선씨 차녀 수진양=27일(토) 오전 11시45분 오페라하우스 3층 그랜드 특실.
- ▲홍석대(전남도청 북구지원과장)씨 차남 영훈(롯데 코리아 세븐 卍 지원팀 계장)군 김영석(卍영전산업 대표이사)씨 장녀 선주양=27일(토) 낮 12시 에블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 ▲임채준(전 한일정염의과원장)씨 차남 중열(남부대 교수)군 주순문씨 장녀 오지영(고창여고 교사)양 27일(토)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 ▲신재희(평산신씨 강진군 화수회장)씨 장남 성민군 정병원씨 3녀 현화양=27일(토) 오전 1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메랄드홀.
- ▲고민관(전남도청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씨 장남 건일군 조진삼씨 차녀 명진양=27일(토)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 홀.

“진정한 茶道의 멋은 교류와 소통이죠”

■광주 찾은 日 타카라즈카市 다도동호회 미시무라 소슈 씨

“은사마의 나라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어요.”

일본 효고(兵庫)현 타카라즈카(寶塚)시 다도동호회 미시무라 소슈(西村宗秀·76·사진 왼쪽)씨는 23일 광주 동아여고를 방문, 학생 30여 명 앞에서 다도시범을 보인 뒤 이렇게 말했다.

지난 21일 광주에 도착한 미시무라씨는 22일 한국다문화협회 호남지부(회장 이혜자) 회원들과 광주시 동구 학동 제다원에서 ‘한일 다도 교류회’를 갖고 양국의 다(茶)문화를 선보였다.

관심이 많던 미시무라씨가 먼저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이번 방문이 성사됐죠.”(정성진씨)

“은사마”인 미시무라씨는 배용준의 팬 자격으로 서울은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미시무라씨를 포함해 이번엔 광주를 방문한 동호회원은 모두 14명. 체류비와 교통비 등을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



도 다른 한·일 양국의 다문화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미시무라씨)

미시무라씨 일행은 담양 소재원 등 가사문학관 일대를 둘러보고 “일본과는 또 다른 한국의 전통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미시무라씨는 특히 동아여고 학생들과 함께 한 다도시연 자리에서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이 내년 우리 도시로 수학여행오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씨는 “대개 한·일간 교류는 서로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지 민간이든, 관이든 반박하다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미시무라 회장은 타카라즈카시 시장의 메시까지 가져와 지속적인 교류를 주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3일 제주로 떠나 제주도를 관광한 뒤 24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동아여고 제공)

동아여고 학생들과 다도시연

“소쇄원 등 가사문학 매력적”

이들은 거의 매년 다른 나라를 방문해 일본의 다문화화를 전파하고 있다. 내년에는 프랑스로 갈 계획이다.

“한복을 꼭게 차려입고 우리를 반겨준 동아여고 학생들, 차문화협회 회원들 모두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지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바다를 육지로 옮기고 싶어요”

■임양수 해남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장

화석·어패류 등 4천종 100만여점 전시

“원양어선 선장 시절을 포함해 30년간 해양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바다를 육지로 옮기고 싶었던 거죠”

해남 땅끝의 해양 자연사 박물관에는 임양수(51)관장의 인생이 담겨 있다.

그가 13년간 원양어선 선장으로 생활하던 시기를 포함해 대략 30여 년간 모은 해양 관련 자료들로 박물관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는 4천 종, 100만 점.

이 때문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무심코 들렀다가 전시품의 다양한 종류와 규모에 놀라는 관광객들도 많다.

화석에서부터 조개류와 어류, 각종 바다생물 전시실, 해양생태계 디오라마 등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바다 생태계의 발달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로 이뤄져 있다.

특히 교실 벽을 더 마련한 자그마한 전시공간이지만 초대형 고래상어를 비롯, 각각각각의 바다생물들로 가득 차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어린이들의 자연학습관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가 해양 자연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수에서 해양대를 졸업하고 원양 어선을 타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지난 2002년 박물관 개관을 돕기 위해 공무원이던 아내까지 직장을 그만 둘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건물도 낡아 박물관으로 개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디다만 지금은 땅 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름대로 명소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뿌듯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리고 있다.

그가 해양 자연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수에서 해양대를 졸업하고 원양 어선을 타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지난 2002년 박물관 개관을 돕기 위해 공무원이던 아내까지 직장을 그만 둘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건물도 낡아 박물관으로 개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디다만 지금은 땅 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름대로 명소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뿌듯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내 골프 시설·선수·캐디 세계적 수준”

방한한 골프다이제스트 타디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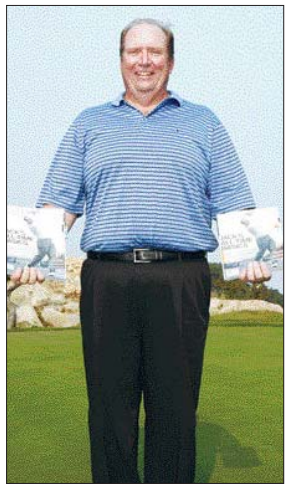
세계 골프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미국 골프 전문 월간지 골프다이제스트의 제리 타디(Jerry Tadi) 회장이 한국을 찾았다.

골프다이제스트는 미국에서 155만부가 팔리고 세계 55개국에서 현지어판이 발행돼 약 660만명이 구독하는 골프 전문지의 대명사.

잭 니클러스, 타이거 우즈, 아니 엘스, 안니카 소

렌스담 등 최고의 스타를 전속 플레이어 에디터로 거느리고 있고 부처 하먼, 데이비드 레드베터 등 세계적인 고수들의 레슨을 독점으로 게재한다.

타디 회장은 1978년 수습기자로 골프다이제스트에 입사해 1984년 스포터로서의 나이에 편입잡에 올랐던 뒤 부사장을 거쳐 1998년부터 회장에 취임해 골프다이제스트, 골프포워딩, 골프월드, 골프월드비즈니스, 인덱스 등 5개 잡지를 총괄하고 있다.



“공익근무 命 받았습디다”

HOT 출신 가수 장우혁 내달 15일 軍 입대

“군 입대가 결정되니 밀렸던 숙제를 해결한 느낌입니다.”

오는 11월15일 군에 입대하는 그룹 H.O.T 출신 솔로가수 장우혁(29)이 오는 11월 15일 군에 입대한다.

탁관찰 이상으로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장우혁은 23일 “오늘 기사를 보고 나의 입대일을 알았다”며 “아직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할 정도로 탁관찰이 안치되진 않았지만 미래를 위해 군복무를 마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우 이하나 '농식품소비촉진 홍보대사'

최근 영화 ‘식객’에 출연한 여배우 이하나가 농식품소비촉진 홍보대사를 맡는다.

농림부는 우리 농산물과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4일 과천 청사 대강당에서 영화 ‘식객’ 시상회와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상규 장관은 직접 이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며 농식품 소비촉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인사**
- ◆코레일
 - ◇사무1급(승진) ▲전남지사 경영관리팀장 박형국
 - ◇기술1급() ▲전남지사 일반차량팀장 신병호

9시 광주월드컵 보조 경기장. 011-627-2015

모임

- ▲전남대 환경공학과 총동문회 모임=27일(토) 오후 5시 히딩크호텔 6층 샤프트홀. 227-8500
- ▲담양 청평초교 제 62회 동창회(회장 김승천) 모임=27일(토) 오후 7시 문흥동 한솔회관. 011-625-5656
- ▲정원황씨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황양선) 강원도 철원 세장산 향사 봉례(시향)=24일(수) 오전 9시 광전동 터미널. 232-6400
- ▲재광 청풍김씨 회수회(회장 김유방) 모임=25일(목) 오후 7시 남도보살. 011-649-5005

향우회

- ▲재광 완도군 금당면 향우회(회장 강대형) 정기총회=27일(토) 오전 11시 증심사 파타외식산업. 011-628-2348
- ▲재광 해남군 향우회(회장 김재욱) 가족 체육대회=28일(일) 오전

부음

- ▲이창규(무등상호저축은행 회장)씨 별세 형훈(무등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형철(송원대 교수)씨 부친상 진영(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춘택(이춘택병원 원장)씨 백씨상 강형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씨 빙부상=발인 25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220-3352
- ▲이대만씨 별세 춘재(여천 NCC)·동제(자영업)·현석(자영업)·병학(이랜드)씨 부친상 이규봉(자영업)씨 빙부상=발인 24일(수) 금호장례식장 402호. 227-4385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평일출근)
고품격! 저비용! 대형주차장
정성껏 섬겼습니다
-대표주재실-

승정장례식장
T.062-941-4400 (평일출근)
고품격! 저비용! 대형주차장
정성껏 섬겼습니다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님들 모두 특별분양
분양 (062) 521-1100